

##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지역 노숙인 쉼터 이용여성을 중심으로 -

신원우\* · 황운성\*\* · 김유경\*\*\*

## Factors Influencing the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of Homeless Women

- Focused on Sheltered Homeless Women in Seoul -

Won Woo Shin\* · Woon Seong Hwang\*\* · Yu Kyung Kim\*\*\*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노숙인의 특수성에 적합한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쉼터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여성노숙인 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를 판단할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자립준비도 척도를 구성하였다. 서베이조사를 통해 서울지역 노숙인 쉼터를 이용 중인 여성노숙인 13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립준비도를 종속변수로, 개인특성 요인과 쉼터환경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 요인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료경험, 우울, 문제음주 여부, 정서중심 대처정도가 자립준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쉼터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쉼터이용 중 경험한 자기변화와 쉼터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노숙인들에게 있어 쉼터생활은 단순한 심리사회적 안정에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자립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며, 자립준비 과정에서 쉼터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여성노숙인, 자립준비도, 노숙인 쉼터, 자기변화, 쉼터 만족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of homeless women in Korea. Based on a review of literature and focus group discussion, the scale of the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of homeless women was developed. For this study,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concerning individual and shelter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the independent living.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139 sheltered homeless women in Seou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in order to analyze data. The major finding was that psychiatric treatment history, depression, problem drinking,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y, perceived self-change in shelter and global satisfaction with shelter influence the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This study implied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 service of independent living in shelter for homeless women.

**Key Words :** homeless wome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homeless shelter, self-change, satisfaction with shelter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yup Sung University), E-mail: wwshin@paran.com, Tel: 031-299-0831.

\*\* 경인사회복지교육센터장(Director, Gyeonggi-Incheon Social Service Education Institute)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

## I.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이다. 그동안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한 법제화를 비롯하여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숙인 보호시설, 일자리, 재활 등 사회복지기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숙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남성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노숙인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기도 하면서 IMF 외환위기의 충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주로 남성노숙인 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노숙인은 소수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지역 노숙인 현황 전산 DB를 구축하고 있는 다시서기센터의 통계<sup>1)</sup>에 의하면 여성노숙인의 수가 2000년 106명(2000년 1월 31일 현재)에서 2008년 166명(2008년 12월 31일 현재)으로 60%가 증가하였다. 또한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신규 여성노숙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전체 신규발생 노숙인 2,431명 중 여성이 530명으로 22%를 차지하여 수적으로 급증하였으며 그 이후 2003, 2004년도에는 매년 300명 선으로 전체 신규노숙의 1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서정화, 2005).

또한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 특성이나 실태, 서비스 욕구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흔히 남성노숙 문제의 주요 원인은 빈곤, 실직 등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노숙 문

제의 경우에도 빈곤이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가정폭력, 정신장애 등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에 비해 더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sup> 또한 자립의 기회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노동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높아 여성에 비해 자립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여성노숙인들은 노숙 이전에 전업주부이거나 비정규직 종사자로 취업의 미경험이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취업과 쉼터 퇴소 후 주거 마련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한 많은 여성노숙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장애나 노숙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자립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여성노숙은 기존의 남성노숙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시각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여성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이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숙인 쉼터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인 자립과 관련하여 여성노숙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립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정무성, 1999), 불안정하게나마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 및 생업 환경을 조성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정은일·김수현, 2000).

여성노숙 문제 해결은 쉼터를 통하여 서비스

1) 다시서기센터에서는 여타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 비해 입퇴소가 빈번한 노숙인 쉼터 이용대상자들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련 서비스 기관들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노숙인 쉼터 이용이원의 입퇴소 및 관련 정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199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2) 일례로 한 여성노숙인 쉼터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노숙 사유에 대해 정신장애 31.4%, 경제적 어려움이 27.9%, 가정불화 및 해체 14.6%, 가정폭력 및 성폭력 10.6% 등으로 나타나 다양하면서도 남성노숙인의 노숙 사유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가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준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노숙인에게 있어서 쉼터는 그 자체로 노숙이나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과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 향후 독립적인 주거 및 가정 복귀를 위한 중간시설 역할의 의미를 갖는다. 즉, 쉼터는 여성노숙인들이 임시적으로 머무는 곳이지만, 일시적인 보호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정신장애 등 특수한 문제를 경험한 여성들이 많은 만큼 쉼터 내 매우 이질적인 성격의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노숙인의 특수성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특수성에 적합한 자립계획과 접근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노숙인들의 어떠한 차별점들이 자립의 차이로 이어지는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다. 지금까지 여성노숙인을 연구 주제로 한 단독적인 연구로는 김광례(2001), 김수현 외(2001), 위정희(2002), 서정화(2005), 김용희(2006)의 연구 정도이다. 이러한 연구들도 주로 여성노숙인의 실태와 욕구, 서비스 개선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여성노숙인의 자립에 차이를 낳는 요인들을 밝혀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와 관련하여 여성노숙인의 개인적 특성 및 쉼터환경 특성의 관점에서 여성노숙인의 특수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노숙인의 개인적 특성과 쉼터환경 특성에 따라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쉼터에서 여성노숙인의 특수성에 적합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구축함에 있어 여성 개개인

의 어떠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쉼터환경의 어떤 측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여성노숙인과 자립준비

지금까지 노숙문제는 주로 남성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에서도 여성노숙인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1970년대 중반이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 SRO(single room occupancy) 등 저가주택이 감소하면서 가족노숙이 급증하게 되었고 아이를 동반한 여성노숙인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Alice and Larry, 1989). 여성노숙인의 수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나타나는데 외국에서는 전체 노숙인의 약 20~40%정도로 제시되며(Alan et al., 2006),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국실직노숙자대책협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약 10%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노숙인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여성노숙인의 경우 노숙에 이르게 되는 원인, 노숙과정에서의 경험과 욕구 등 여러 측면에서 남성노숙인과 다름을 보여준다. 노숙을 야기한 주된 원인에 대해 남성노숙인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비해, 여성노숙인들은 가정폭력이나 정신질환 등이 주로 언급된다(김수현 외, 2001). 그리고 노숙과정에서 여성노숙인들은 남성들에 비해 비자발적 성경험이나 성폭행 및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Alan et al., 2006) 거리노숙에 대한 공포감이 크고, 이로 인해 남성들에 비해 거리노숙기간이 짧고 서비스 활용 정도가 큰 경향을 보인다(Calsyn and Morse, 1990; Roll et al., 1999).

또한 남성들에 비해 대부분 쉼터에서 빨리 독립하여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정화, 2005; Goering et al., 1990).

이렇듯 노숙생활의 위협에서 빨리 탈출하여 자립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강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숙인들은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적으로도 노숙으로부터의 이탈은 맘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보통인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낮은 인적자본, 안정되지 못한 가정에서의 성장배경, 정신질환, 취약한 주거에서의 생활, 척박한 노숙환경 등이 자립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Davis and Kutter, 1998). 이러한 자립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자립하여 쉼터를 일시 퇴소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노숙상태로 돌아오는 비율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iliavin et al., 1996; Zlotnick et al., 1999).<sup>3)</sup>

노숙이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 생활사의 사건이므로, 상당수의 노숙인들은 노숙과 이탈, 그리고 재노숙을 반복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숙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노숙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자립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노숙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자립능력이나 자립준비 수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일시적 성격이 강한 노숙이탈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노숙이탈이나 자립을 논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들이 갖는 특수한 측면들 또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Zlotnick et al., 1999; Piliavin et al., 1996; Wong

et al., 1997; Dworsky and Piliavin, 2000; 서정화, 2002; 남기철, 2000).

이러한 한계는 여성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여성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여성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노숙인보호사업안내」에 따르면, 노숙인보호사업은 크게 쉼터노숙인 보호사업, 거리노숙인 보호사업, 쪽방상당소 운영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각 시설 및 상당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부사업으로는 노숙인 자활사업, 정신보건 및 알코올재활 프로그램, 의료서비스 사업, 자활의 집 사업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7). 최근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SH공사가 제공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공동모금회의 '임시주거비지원'을 통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어 주거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사업 혹은 프로그램은 대상이나 인원, 서비스의 내용 면에서 남녀 구분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여성노숙인을 특화하거나 배려한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개별 여성노숙인 쉼터에서 외부지원금을 재원으로 공동부업장 사업, 문화 프로그램(영화 및 연극 관람) 운영, 성교육 프로그램, 아동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아동학습 지원, 아동심리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정도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거리노숙과 자립 사이를 매개하면서 자립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단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 단위는 바로 쉼터이다. 미국의 경우 노숙으

3)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여성 노숙인들의 자립능력 및 자립과정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남녀 노숙인의 자립과정에 대한 비교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로부터의 단계적 이탈과 전환을 지원하는 쉼터체계는 의식주 제공을 통한 생존 보장과 거리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등 응급구호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쉼터(emergency shelter)와 자립준비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환형 주거(transitional housing) 및 지원형 주거(supportive housing)로 체계화·계층화되어 있다.<sup>4)</sup> 이에 전환형 주거나 지원형 주거 등은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자립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Poole and Zugazaga, 2003). 이 쉼터들에서 실시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로서 취업준비 및 직업훈련, 주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훈련,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한 대인관계 훈련, 약먹기·시간관리하기·돈 관리하기 등의 자기관리 훈련, 반찬하기·장보기·정리정돈하기 등의 일상생활 관리 훈련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Edgar and Doherty, 2001; Giffords et al., 2007).

우리나라 노숙인 쉼터는 단일화되어 있어 응급구호와 자립준비의 두 기능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노숙인 쉼터에서는 기초적이기는 하나 쉼터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보통 심리재활프로그램과 취업준비프로그램 그리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광래, 2001; 서정화, 2005; 송순영, 2007).

그러나 외국이나 우리나라 공히 노숙인 쉼터에

서 자립준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는 거의 없다. 노숙인 분야보다 자립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이나 시설청소·소년 분야의 연구들을 참고해 보면, 이들 분야에서는 자립을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생활관리, 대인관계, 문제해결, 취업준비, 그리고 여가생활 등에서의 기술향상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박은선, 2004; 신혜령, 2001).<sup>5)</sup>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숙인 자립준비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장애인 및 시설·청소·소년 분야에서 개발된 자립준비도 지표의 내용을 종합하여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의 지표를 크게 경제적 차원, 일상관리 차원, 대인관계 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 2.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개인적 특성

#### (1) 정신건강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진 노숙인이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인 중 정신건강 이상자의 비율은 정상인에서의 비율보다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기철, 2000). 정신건강문제는 특히 여성노숙인들이 노숙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Bassuk et al., 1984; Crystal, 1984; Hagen, 1987).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인들

4) 전환형 주거는 자립을 준비하는 쉼터라기보다 노숙인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탐색하는 단계의 단위이며, 지원형 주거는 만성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자들이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주하는 단위이다.

5) 국내에서 남성노숙인의 자립 대신 자활의지를 다룬 연구가 일부 있다(하응호, 2003; 강재수, 2003; 최은주, 2001; 김사검, 2006 등). 대체로 이러한 연구들은 노숙인의 근로의욕 또는 자활의지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자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자활의지에 대한 지표의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은 인지능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유용한 자원의 획득가능성이 떨어지며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의 결핍과 정보접촉기회의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도도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Zlotnick et al., 2003; Takahashi and Wolch, 1994). 설사 컴퓨터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인들은 컴퓨터생활에의 적응 자체가 쉽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들의 경우 일상생활기술이 부족하여 컴퓨터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환각 혹은 환청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서정화, 2005).

우울은 노숙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원인일 수도 있지만 노숙이 초래한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Sullivan et al., 2000), 여성 노숙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김수현 외, 2001)이기 때문에 여성노숙을 다루는 연구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우울증상이 심하면 자발적인 행동주도성이 감소하고 인지 또한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Seligman, 1975; 윤진·조공호, 1983) 노숙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일상을 무기력함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

한편 음주문제 또한 노숙인들에게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이다. 음주문제가 있는 노숙인들은 건강상태 또한 나쁠 뿐 아니라 컴퓨터의 금주(禁酒)규칙을 어기고 음주문제를 일으켜 강제퇴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컴퓨터들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남기철·황운성, 2002). 그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노숙에서 벗어나 안정적 주거를 얻은 경우에도 그 주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Zlotnick et al., 1999).

남기철(2000)은 정신질환, 우울 및 음주문제와

노숙이탈과의 관련성을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환경에 대한 통제가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될 때 무기력하게 되며, 일단 무기력하게 되면 행동과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아지고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수동성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 또한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주위 상황에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상황을 야기하는 우울이 심화되고, 부정적 자아상을 다루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숙문화에의 적응성을 높여 노숙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볼 때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은 여성노숙인들의 경우, 정신질환, 우울, 그리고 음주문제는 컴퓨터에 무기력하게 안주하게 하고 이는 자립의지와 능력을 저해하여 자립준비 정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 (2) 노숙기간

노숙기간이 길어질수록 노숙으로부터의 탈출은 어려워진다(남기철, 2000; 강재수, 2003; Piliavin et al., 1996; Wong et al., 1997).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노숙기간이 정신건강의 손상을 매개로 하여 노숙이탈 가능성을 낮춘다는 설명과 노숙기간이 노숙하는 당사자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서 노숙이탈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는 설명으로 크게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노숙기간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노숙이탈을 어렵게 한다는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숙인들은 노숙에 이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그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 그리고 노숙과정에서 느끼는 수치감이나 무능감에 의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이를 잊기 위해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노숙상

태에서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Zlotnick et al., 2003).

이러한 상황은 특히 남성들에 비해 정신건강 상태가 취약하며, 노숙이전 혹은 노숙과정에서 겪는 성적, 육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많고, 이로 인한 심리정신적 손상의 정도가 큰 여성노숙인들에게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여성노숙인들이 남성노숙인들에 비해 노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노숙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Fearday et al., 2002).

다음으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숙이탈을 어렵게 한다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노숙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수치심 등으로 인해 노숙이전에 형성하고 있던 사회적 지지망이 축소되고, 노숙과정에서 만난 다른 노숙인들과의 새로운 지지망이 형성된다. 그러는 동안 노숙문화에 익숙해지게 되고 점차 노숙정체성을 갖게 되며 정상적인 사회적 규범에서 멀어지게 되며 그 결과 노숙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Piliavin et al., 1996; 남기철, 2000).

결국 노숙기간의 증가는 정신적 손상을 놓고 노숙정체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 노숙이탈을 가로막아 노숙기간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상호인과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노숙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의지나 구체적인 자립준비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대처전략: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 대처전략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Lazarus and Folkman(1984)은 대처전략을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로 분류하는데, 즉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인자에 변화를 주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며, 정서중심

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감정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문제중심적 대처전략을 긍정적인 것으로, 정서중심적 대처전략을 부정적인 것으로 단순하게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신원우, 2003). 그러나 정서중심적 대처방법이 사건을 직접 직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기능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최해연, 2000), 최근에는 특정 대처전략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대처의 초점이 문제중심적이나 정서중심적이나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박연성·현은민, 2007; 문영주·좌현숙, 2008 재인용).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의 사용은 문제의 성격이나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 등의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제의 성격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극복가능한 문제인 경우에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인 경우에는 이러한 대처방식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Thoits, 1995; Littrell and Beck, 2001).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정서중심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자신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 종교 등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거나 문제의 성격을 다르게 재해석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전경구·김교현, 2003).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대처방식 연구는 극히 적은 편이나 남녀 노숙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 대부분에서 약물남용, 우울 등을 해결하는데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신원우,

2003; 김정곤, 2004; Galaif et al., 1999; Nyamathi et al., 2000). 그러나 이는 우울이나 약물남용 등 특수한 영역의 문제에 대한 대처전략을 겨냥한 연구결과들이며, 노숙이라는 일반적인 한계상황에서 여성노숙인들의 어떠한 대처전략을 사용하며 또 그 전략이 그들의 자립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다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쉼터환경 요인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들의 자립생활 준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노숙인들은 노숙상황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개인적인 좌절과 경제적 파산 그리고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경험한다. 그리고 노숙상황에 이른 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고립적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지지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회복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이현미, 2007). 그 중 가장 중요한 공식적 지지자원이 노숙인 쉼터인데, 쉼터는 노숙인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주거 및 의식주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경제적인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홍선미, 2001)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숙인 쉼터에서의 생활은 응급상황에서 는 도움이 되지만, 자조능력을 훼손하거나 쉼터의 존을 증가시킬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Poole and Zugazaga, 2003). 이에 외국에서는 1990년대 「보호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 개념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노숙인

쉼터를 그 주된 기능에 따라 응급상황을 돕기 위한 응급쉼터와 자활을 돕기 위한 주거들(전환형 주거, 지원형 주거, 영구주거)로 분리하였다. 응급 쉼터에서는 초기 응급상황에서 신체적·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활을 돕기 위한 쉼터에서는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노숙인들이 이용하는 쉼터들은 응급쉼터와 자활쉼터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노숙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이 거리나 다른 쉼터가 아닌 정상적인 사회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균형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심리정서적 환경을 구축하여 편안한 일상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속 안주할 수는 없다는 긴장감을 적절히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노숙인 쉼터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는 단순한 쉼터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김영택, 1999; 강동원, 2000; 손주희, 2000). 이는 편안한 거처의 제공에만 쉼터의 기능을 국한하고 있을 뿐 이 편안함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개개인들이 각자의 자립을 준비해갈 수 있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측면은 그다지 조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일상적인 생활세팅을 통해 개인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쉼터 만족도뿐만 아니라 쉼터를 통한 개인의 변화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6)</sup> 개인의 변화가 부재한 쉼터 만족도

6) 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과 환경의 변화'인데, 이중 인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은 일상생활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일상생활이 주로 진행되는 쉼터는 대상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볼 수 있다(김혜성, 2000).



는 자칫 쉼터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쉼터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두려움만 가중시켜 흔히 지적되듯 '시설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쉼터 만족도와 쉼터를 통한 개인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 이외에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쉼터환경 요인은 바로 쉼터가 갖는 지지적 환경으로서의 기능이다. 앞서 언급된 바 있듯 노숙인들은 노숙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간의 사회적 지지망을 대부분 잃게 되며, 상당수가 오랫동안 따뜻하고 애정어린 관계가 결핍된 상태에서 생활해왔다(Blankertz and Cnaan, 1993).

그간 노숙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는 극빈자가 노숙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적 혹은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McChesney, 1995; Nyamathi et al., 2000)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비교적 최근에 서울지역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김선희(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거리노숙인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어 이미 노숙으로 전락한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는 자신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쉼터에서 지내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노숙인들에게 쉼터를 통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이들의 자립지원 환경으로서의 쉼터기능의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쉼터이용 여성노숙인들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특성 요인과 쉼터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개인특성 요인으로는 정신건강, 노숙기간,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쉼터환경 요인으로는 쉼터 만족도, 쉼터이용 중 개인의 변화, 그리고 쉼터를 통해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 등으로 나누어 이들

각각의 변인들이 쉼터이용 여성노숙인들의 자립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선행연구 고찰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독립변수-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통제해야 할 변수를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여성노숙인들이 거리와 자립생활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쉼터를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주요하게 작용하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2007년 5월 현재 서울지역 여성노숙인 쉼터(10개소)와 드롭인센터(1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sup>7)</sup>

7) 이 중 2개소는 모자가족 단위의 쉼터이고, 1개소는 모부자가족 모두 이용 가능한 가족 단위 쉼터이며, 1개소는 단신 남성과 여성 노숙인을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서베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집단 규모가 크지 않아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나, 조사협조를 거부한 1개의 소규모쉘터 이용여성들(6명)과 조사 수락 쉘터 이용자 중 조사참여를 원치 않는 여성들을 제외하고 총 13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사전조사는 전체 쉘터들 중에서 가장 조건이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쉘터 1개소, 드롭인센터 1개소)의 이용여성 17명을 대상으로 2007년 5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되었고, 이를 기초로 보완한 설문지를 통해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쉘터책임자의 협조를 구하고 연구자가 직접 쉘터를 방문하여 설문지의 취지에 대해 조사대상 여성들에게 설명한 뒤, 자가작성이 가능한 경우는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언어 및 인지능력이 취약하거나 자가작성된 내용 중 응답이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조사자가 면접설문 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 3. 조사도구

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대부분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주요 변수인 자립준비도 척도, 쉘터이용 중 자기변화 척도, 그리고 쉘터 만족도 척도는 본 연구의 대상 및 내용에 적합한 표준화된 척도가 마땅하지 않아 새로 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를 거친

후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토를 위해서는 크론바의 알파계수를 확인하였고, 타당도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9명<sup>8)</sup>에게 서면 및 이메일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1) 종속변수: 자립준비도

자립준비도는 쉘터를 퇴소했을 때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이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해당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평정하였고 전체 문항의 합산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다.

척도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먼저, 여성쉘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실무자들과의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떤 점이 자립준비도의 지표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쉘터 생활 중 어떤 특성들을 보이는 여성들이 실제로 자립에 성공하는지 질문하여 실무자들이 제시한 진술문들을 확보하였다. 이 중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조정하고, 실무자들과의 재협의를 통해 최종 18개 문항으로 문항을 구성한 뒤 관련 전문가들에게 해당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토를 의뢰하였다. 타당도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새롭게 제시한 자립지표들을 반영하고 기존 문항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한 뒤 최종 문항을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실무자들이 제시한 특성들은 경제적 자립준비 수준, 일상생활 유지능력, 관계유지 능력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동일 영역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실제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기 위

모두 대상으로 하나 별도의 건물에 숙소를 달리 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쉘터들이 아닌 경우 대부분 단신 여성들이 이용하지만 자녀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도 일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8) 여성 전공 박사 2인(세부전공: 여성의 이혼, 여성장애인의 취업), 8년 이상 노숙 및 여성노숙 분야에서 종사한 실무자 및 시설장 4인, 기타 노숙 및 정신건강 전문가 3인

〈표 1〉 자립준비도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성분				공통 분산
	1	2	3	4	
현재 일을 하고 있다.	.763	.182	-.098	.206	.668
저축을 하고 있다.	.728	.142	.073	-.315	.655
현재 내 통장이 있다.	.704	-.031	.164	.032	.525
지난 한달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꾸준히 일했다.	.604	.263	.073	.302	.531
지난 한달동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잘 참았다.	-.181	.807	.090	-.030	.693
지난 한달동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다.	.193	.642	.220	.194	.535
지난 한달동안 컴퓨터에서 정리정돈을 잘 했다.	.312	.625	.202	.033	.530
지난 한달동안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 했다.	.385	.603	.194	.184	.584
지난 한달동안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했다.	-.072	.284	.805	.082	.740
지난 한달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다툼 적 없다.	.098	.130	.708	.018	.528
지난 한달동안 화나면 말로 해결했다.	.431	.032	.503	.257	.506
지난 6개월 사이 따로 집을 얻어 살았던 적이 있다.	-.070	-.002	.125	.753	.588
지난 6개월 사이 1달 이상 취직을 했던 적이 있다.	.259	.156	.342	.516	.476
지난 한달동안 밥/반찬만들어 본 적 있다.	.176	.403	-.161	.515	.484
고유값	4.112	1.657	1.154	1.119	
총분산(%)	29.373	11.836	8.244	7.996	
누적분산(%)	29.373	41.208	49.453	57.449	

해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sup>9)</sup> 〈표 1〉에서와 같이 크게 경제적 차원, 일상관리 차원, 대인관계 차원, 자립경험 차원의 4가지 영역으로 하위요인이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선정과정에서 ‘밥과 반찬을 만들어본 적이 있다’는 일상관리 차원으로, ‘따로 집을 얻어 살았던 적이 있다’와 ‘1달 이상 취직을 했던 적이 있다’는 경제적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요인분석에서는 이 3개의 문항이 실질적인 독립경험이 있었는지의 지표로 별도로 구분됨을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자립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와 하위요인 구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4개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크론바의 알파계수는 .805였다.

## 2) 독립변수

### (1) 개인특성 요인

#### ① 정신과 진료경험

정신과 진료경험은 응답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이내에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진료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값을 부여하였다.

#### ② 우울

우울은 우울증상의 심각성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9개 정신증상의 차원을 9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중 우울 차원을 검사하는 13개 문항 중 응답에 대한 저항이 높고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1개 문항(‘성욕감퇴’)을 제외하고

9)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 표준적합도는 .804로 각 변수들의 선정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했고,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틀렛의 구형성검정치가 458.648( $p=.000$ )이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SCL-90R은 응답일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1점)'에서 '아주 심하다(5점)'까지에 이르는 5점 평정을 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12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조작화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를 살펴봄으로써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크론바의  $\alpha$ 계수가 .92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 ③ 문제음주 여부

문제음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를 사용하였다. AUDIT은 지난 1년 간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 의존 증세, 음주와 관련된 문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총 10개 문항으로 측정하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마시지 않는다' 또는 '전혀 없다(0점)'에서 '거의 매일(4점)'까지로 평정하여 전체 문항의 합산값을 계산한다. 이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인 경우를 음주문제 위험군으로 판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에 입각해 문제음주 위험군으로 판별되면 1, 정상군으로 판별되면 0으로 측정하였다. AUDIT 10개 문항의 크론바의 알파 신뢰도계수는 .901였다.

### ④ 대처전략: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

대처전략이란 응답자가 스트레스에 대해 어떤 태도나 방식으로 대응하는가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Lazarus and Folkman(1984)이 개발하고 김정희(1987)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한 바 있는 '대처방식척도(The Way of Coping Checklist)'를 24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조성희(1999: 신원우, 2003 재인용)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리커트형 4점 척도로 구성되며 '해당없음(0점)', '약간 사용(1점)', '어느 정도 사용(2점)', '아주 많이

사용(3점)'으로 각 문항을 평정한 뒤 문제중심적 대처문항(12문항)과 정서중심적 대처문항(12문항)의 평균값을 각각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평균값이 클수록 각 하위영역의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도 검증결과, 크론바의 알파계수가 문제중심적 대처전략은 .875, 정서중심적 대처전략은 .802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⑤ 노숙기간

노숙기간은 거리에서 노숙한 기간과 현재의 쉼터를 포함하여 노숙인 쉼터에서 지낸 전체 기간의 합을 의미하며, 거리노숙기간과 노숙인 쉼터 총이용기간을 각각 직접 기입하게 한 뒤 이를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합산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쉼터환경 요인

### ① 쉼터 만족도

쉼터 만족도는 이용 중인 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식사, 잠자리,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규칙, 실무자, 프로그램, 사생활 보장 등 총 15가지 쉼터환경 요인들에 대한 만족 정도를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토는 앞서 자립준비도 척도와 같은 방식으로 전문가들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토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 검토는 크론바의 알파계수(.935)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타당도와 신뢰도 모두 분석에 사용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쉼터 만족도를 1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조작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② 컴퓨터용 중 자기변화

컴퓨터용 중 자기변화란 컴퓨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타당도와 신뢰도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문항의 선정은 컴퓨터 및 컴퓨터실무자들이 목표로 삼는 여성노숙인들의 '긍정적 변화'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실무자들과의 포커스그룹을 통해 이루어졌고, 여기서 선정된 문항들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 검토를 받았다. 이 척도는 긍정적 변화의 지표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근면함, 건강관리, 청결유지와 외모관리, 규칙적 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정한 뒤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을 대표값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점수가 클수록 컴퓨터를 통해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 크론바의 알파계수는 .94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 ③ 컴퓨터로부터의 지지

컴퓨터로부터의 지지는 노숙인 컴퓨터 이용 중인 여성들이 컴퓨터를 통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하위영역에 대한 학자별 입장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정보적, 그리고 물질적 지지로 나누어 접근한 Lopata(1975; 이원숙, 1997 재인용)의 입장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돈, 음식, 일, 치료와 같은 실질적 도움과 위로, 지지, 존중과 같은 정서적 지원, 그리고 정보, 조언, 충고와 같은 정보제공이라고 하는 3가지 차원에 대해 컴퓨터의 실무자들부터 그리고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는 동료들로부터 각각 어

느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지를 4점 리커트 방식('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으로 평정하고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였다. 평균점수가 클수록 컴퓨터로부터 받는다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크론바의 알파 신뢰도계수는 .853이었다.

## (3) 통제변수

자립준비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통제해야 할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 결혼경험 유무, 그리고 거리노숙경험 유무를 포함시켰다. 연령은 응답자의 응답시 연령으로, 결혼경험 유무와 거리노숙경험 유무는 해당경험이 없으면 0, 있으면 1로 측정하였다.

## 4. 분석방법

분석에는 SPSS 12.0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응답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용된 주요 척도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대략적인 관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서울시 여성노숙인 쉼터 거주자의 일반적 현황은 <표 2>와 같다. 연령대로는 40대가 46.3%로 가장 많으며, 30대(22.4%), 50대(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 여성노숙인 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김수현 외(200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상태의 경우 이혼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별거(27.4%), 미혼(18.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4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노숙인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은 그동안 밝혀진 남성노숙인 실태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수입의 경우 전혀 없다는 응답이 28.1%로 나타나 여성노숙인의 경제적 수준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 직업에 대한 응답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무직이라는 응답이 19.3%로 가장 많은 반면 정규직은 7.4%에 그쳐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8%로 나타나 여성노숙인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정신건강 면에서 취약한 여성노숙인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AUDIT 검사 결과를 통해 선별한 문제음주 여부의 경우 문제음주자 비율이 11.9%로 나타나 동일한 조사 도구를 활용한 전국 음주실태 조사(제갈정, 2001)에서 성인 여성의 문제음주자 비율인 9.2%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연령 (N=134)	10대	4	3.0
	20대	14	10.4
	30대	30	22.4
	40대	62	46.3
	50대	20	14.9
	60대	4	3.0
결혼상태 (N=135)	기혼(관계 지속)	11	8.1
	기혼(별거)	37	27.4
	기혼(이혼)	48	35.6
	사별	5	3.7
	미혼	25	18.5
	기타	9	6.7
학력 (N=138)	무학	3	2.2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13	9.4
	중학교 중퇴 및 졸업	30	21.8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65	47.1
	전문대 중퇴 및 졸업	12	8.6
	대학교 중퇴 및 졸업	13	9.4
	기타	2	1.4
월수입 (N=121)	없음	34	28.1
	30만원 미만	20	16.5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23	19.0
	6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22	18.2
	90만원 이상	22	18.2
현 직업 (N=135)	정규직	10	7.4
	공공근로사업	21	15.6
	일용 및 단순노무직	23	17.0
	부업(공동작업장)	16	11.9
	자활근로사업	11	8.1
	무직	26	19.3
	기타	26	19.3
정신과 진료 경험 (N=138)	있음	48	34.8
	없음	90	65.2
문제음주 여부 (N=135)	있음	16	11.9
	없음	119	88.1

여성노숙인의 노숙 관련 특성은 <표 3>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30.8%만이 거리노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남성노숙인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위협 요인이 많은 거리에서 노숙하기 보다는 곧바로 여성노숙인 쉼터로 입소하는 여성이 많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되는 내용이다. 쉼터 거주기간의 경우 6개월 이하 거주하는 응답자가 2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년을 초과해서 거주한다는 응답자도 21.1%로 나타나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와 함께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 단신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5% 정도가 자녀와 함께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단신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크게 차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노숙 관련 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거리노숙 경험 (N=130)	있음	40	30.8
	없음	90	69.2
쉼터 거주기간 (N=123)	6개월 이하	31	25.2
	6개월 ~ 1년 이하	27	22.0
	1년 ~ 1년 6개월 이하	18	14.6
	1년 6개월 ~ 2년 이하	21	17.1
	2년 초과	26	21.1
자녀동반 여부 (N=139)	자녀와 함께 쉼터 이용	62	44.6
	혼자 이용	77	55.4

<표 4>는 조사 대상자들이 노숙하게 된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1순위 응답에서 남편의 폭력이 3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15.8%), 부채 문제(10.5%)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22.3%), 정신질

환(13.6%), 남편의 폭력(12.6%), 집세 지불능력 부족(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숙인의 노숙 이유는 가정폭력 등 가족해체와 정신질환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남성노숙인의 노숙 이유가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남성노숙인과 여성노숙인의 노숙 이유와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노숙 이유

항목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부채 문제	14	10.5	8	7.8
이혼(가족해체)	21	15.8	10	9.7
남편의 폭력	48	36.1	13	12.6
집세(방세) 지불 능력 부족	13	9.8	13	12.6
버림받거나 집에서 쫓겨남	13	9.8	8	7.8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음	5	3.8	11	10.7
정신질환	5	3.8	14	13.6
시설에서 퇴소함	1	0.8	3	2.9
가족 간의 갈등	13	9.8	23	22.3
합계	133	100.0	103	100.0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종속변수인 자립준비도는 8.48점이었으며, 하위요인들 중에서 실질적인 자립경험 차원의 수준이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특성 요인들의 평균은 우울이 3.04, 문제중심 대처가 1.28, 정서중심 대처가 1.25, 그리고 노숙기간이 22.41개월(약 2년)이었다. 쉼터환경 요인의 평균은 5점 척도로 측정된 쉼터 만족도와 쉼터이용 중 자기변화가 각각 3.85와 3.67이었고, 4점 척도로 측정된 쉼터로부터의 지지는 2.84였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1.37세였다.

〈표 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종속 변수	자립준비도	8.48	3.46	0-14
	-경제적 차원	2.64	1.37	0-4
	-일상관리 차원	2.81	1.35	0-4
	-대인관계 차원	1.82	1.09	0-3
	-자립경험 차원	1.22	.92	0-3
독립 변수	개인 특성			
	우울	3.04	.85	1-5
	문제중심 대처	1.28	.65	0-3
	정서중심 대처	1.25	.56	0-3
	노숙기간(개월)	22.41	23.42	1-126.83
	컴퓨터 환경			
통계변수	컴터만족도	3.85	.66	2-5
	컴터이용 중 자기변화	3.67	.78	1-5
통계변수	컴터로부터의 지지	2.84	.78	1-4
	연령(세)	41.37	9.95	16-63

주: ( )는 단위

## 2. 상관관계

〈표 6〉은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종속변수인 자립준비도와 주요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문제중심 대처( $r=.349$ ), 정서중심 대처( $r=.262$ ), 컴퓨터이용 중 자기변화( $r=.348$ ), 연령( $r=.197$ ), 결혼유무( $r=.176$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과 진료 경험( $r=-.277$ ), 우울( $r=-.229$ ), 문제음주 여부( $r=-.332$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체로 선행연구 고찰에서 여성노숙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여러 요인들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요한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계수들의 대부분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는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 $r=.743$ ), 컴퓨터 만족도와 컴퓨터이용 중 자기변화( $r=.601$ )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인재 외(1997)가 제시한 다중공선성 기준인 .80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계수

〈표 6〉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자립준비도	1												
2 정신과 진료	-.277***	1											
3 우울	-.229**	.067	1										
4 문제음주여부	-.332***	.025	.285***	1									
5 문제중심대처	.349***	-.177*	.110	-.203*	1								
6 정서중심대처	.262**	-.135	.259**	.090	.743***	1							
7 노숙기간	-.165	.300***	.053	-.007	-.124	.001	1						
8 컴터만족도	.154	-.254**	-.101	-.087	.256**	.200*	-.043	1					
9 자기변화	.348***	-.177*	-.050	-.175*	.318***	.198*	-.028	.601***	1				
10 컴터지지	.019	-.012	.000	-.120	.276***	.118	.143	.381***	.328***	1			
11 연령	.197*	.151	-.232**	-.295***	.034	-.067	.253**	.093	.109	.050	1		
12 결혼유무	.176*	-.259**	.089	-.185*	.120	.077	-.200*	.091	.107	.087	.273**	1	
13 거리노숙경험	-.145	.236**	.047	.049	-.240**	-.122	.313***	-.096	-.125	.031	.102	-.128	1

\*  $p<.05$ , \*\*  $p<.01$ , \*\*\*  $p<.001$



가 기준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주요 변수들을 회귀 분석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3. 회귀분석 결과

〈표 7〉은 여성노숙인의 개인특성 요인과 컴퓨터 환경 요인이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모형의 적합성과 설명력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Beta	t
개인 특성	정신과 진료경험 (1=있음)	-1.712	-.242	-2.740**
	우울	-1.137	-.273	-3.096**
	문제음주여부 (1=문제음주자)	-2.807	-.278	-3.056**
	문제중심 대처	-.019	-.004	-.028
	정서중심 대처	1.736	.270	2.192*
	노숙기간	-.012	-.083	-.913
컴퓨터 환경	컴퓨터 만족도	-1.413	-.281	-2.684**
	컴퓨터이용 중 자기변화	1.252	.280	2.748**
	컴퓨터로부터의 지지	-.162	-.037	-.409
통계 변수	연령	.049	.146	1.604
	결혼경험 유무 (1=기혼)	.322	.038	.430
	거리노숙경험 유무 (1=유)	-.358	-.049	-.597
(상수)		10.292		4.376***
R <sup>2</sup>		.477		
F		7.216***(df=12)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은 정신과 진료경험, 우울, 문제음주 여부, 정서중심 대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정서중심 대처는 종속변수인 자립준비도에 정(+)의 영향을, 정신과 진료경험, 우울, 문제음주 여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할수록, 정신과 진료경험이 없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문제음주자가 아닐수록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정서중심 대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이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정서중심 대처는 문제중심 대처에 비해 소극적 대처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즉, 노숙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으로서 당장의 문제해결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문제중심 대처보다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도 정서적 안정감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서중심 대처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서중심 대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재인식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가므로 이를 문제중심 대처에 비해 역기능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적응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한편, 정신과 진료경험, 우울, 문제음주 여부는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 무엇보다 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대로 정신질환, 우울, 음주문제 등은 컴퓨터 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컴터를 이용하는 동안 이러한 문제를 사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환경요인은 컴퓨터 만족도와 컴퓨터이용 중 자기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컴퓨터이용 중 자기변화는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정(+)의 영향을, 컴퓨터 만족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컴퓨터이용 중 자기변화가 높을수록, 컴퓨터 만족도가 낮을수록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만족도가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제시한 '시설병혹은 컴퓨터 의존성(shelterization)'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컴퓨터 생활에 좀 더 만족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 컴퓨터를 벗어나 독립적 주거를 준비하여 자립하려는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여성노숙인의 경우 외국과 같이 지원형 컴퓨터나 전환형 컴퓨터 등 대안적인 안정적 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컴퓨터를 안정적 거주공간으로 인식할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자립 대신에 지속적인 컴퓨터 거주를 선택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컴퓨터가 훌륭한 물리적·정서적 환경을 제공할 때 더 이상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집'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나타나"(김혜성, 2000)는 것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컴퓨터를 이용하는 동안 컴퓨터생활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다고 지각하는가는 여성노숙인들의 자립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에 필요한 식사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기술들을 회복해가고 위생 및 건강 등 자기관리

능력이나 대인관계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해나가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떠돌이 생활로 간단한 집안 청소도 하지 못했던 여성노숙인들이 컴퓨터에서 이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서정화, 2005). 또한 컴퓨터의 다양한 서비스는 여성노숙인들로 하여금 사회 적응과 탈노숙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표 4>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노숙인들의 노숙 이유에서 가정폭력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요인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컴퓨터는 이러한 문제를 가진 여성노숙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및 치료를 위해 상담, 신체적 의료 및 정신과 진료 등 노숙 전 받지 못했던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여성노숙인들은 컴퓨터 서비스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곧 여성노숙인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노숙인의 특수성에 적합한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및 컴퓨터환경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여성노숙인 컴퓨터에 근무하고 있는 컴퓨터 실무자들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여성노숙인에게 있어 자립준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자립준비도 척도문항을 구성했다. 전문가로부터의 내용 타당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토를 마친 후 이를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자립준비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자립준비도와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특성 및 컴퓨터환경요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서울 시내 여성노숙인 컴퓨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 139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립준비도 척도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크게 경제적 차원, 일상관리 차원, 대인관계 차원, 자립경험 차원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적 차원의 자립준비는 주로 직업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쉼터에 입소하는 동안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을 하고 있거나 저축을 하여 쉼터 퇴소 후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다. 일상관리 차원의 자립준비는 쉼터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과 책임감을 통하여 사회복귀 후 지역사회에 통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대인관계 차원의 자립준비는 쉼터 내 실무자나 함께 생활하는 입소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 해결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쉼터 퇴소 후에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배양했는가를 말한다. 자립경험 차원의 자립준비는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하거나 실제 독립주거를 유지한 경험 등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나 경험이 있는지를 말한다.

둘째, 여성노숙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존의 남성노숙인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노숙 관련 특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노숙은 조사 대상자의 30.8%만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남성에 비해 거리노숙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숙 사유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가족갈등, 정신장애 등 비경제적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노숙이 많은 남성노숙인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노숙인의 노숙 경험이 남성노숙인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노숙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여성노숙인의 개인특성 요인과 쉼터환경 요인에 포함되는 변수와 자립준비도와 상관을 분석한 결과,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쉼터이용 중 자기변화, 연령, 결혼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신과 진료 경험, 우울, 문제음주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체로 선행연구 고찰에서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와 관련한 여러 요인들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회귀분석 결과,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은 정신과 진료 경험, 우울, 문제음주 여부, 정서중심 대처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 중에서 정서중심 대처는 종속변수인 자립준비도에 정(+)의 영향을, 정신과 진료 경험, 우울, 문제음주 여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할수록, 정신과 진료경험이 없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문제음주자가 아닐수록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정서중심 대처는 여성노숙인들로 하여금 노숙과 같이 문제중심 대처가 가능하지 않은 스트레스 상황을 재인식하고 주변으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자립준비에 도움이 되는 양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중심 대처가 문제중심 대처에 비해 소극적 대처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다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신과 진료 경험, 우울, 문제음주 여부는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립을 위해서

여성노숙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 쉼터환경 요인 중 쉼터 만족도와 쉼터이용 중 자기변화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쉼터이용 중 자기변화 정도가 클수록 쉼터 만족도가 낮을수록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노숙상태를 피해 쉼터를 이용하게 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쉼터 만족도가 쉼터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쉼터를 퇴소하여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과정에는 높은 쉼터 만족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쉼터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쉼터에 안주하려는 경향이나 의존도를 높여 궁극적인 자립준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쉼터이용기간 동안 자립을 위해 각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 있듯 쉼터이용 중 자기변화 정도가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은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함의로서, 본 연구는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 척도 개발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밝힘으로써 자립과 관련한 여성노숙인의 특수성을 새롭게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여성노숙인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여성노숙인의 실태와 기본적 욕구 혹은 정책 건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에 제한되어 있었다. 반면 남성노숙인과 관련해서는 유형, 서비스 욕구뿐만 아니라 쉼터 퇴소와 관련한 역동, 음주문제 및 정신건강 문제, 거리노숙 생활, 자활의지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으며 비교적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함

으로써 이론적으로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정서중심 대처와 쉼터 의존성으로 볼 수 있는 만족도가 기존 연구와 다른 양상으로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여성노숙인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이론적 기여를 제공한 것으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정책적 함의와 관련하여 여성노숙인들이 남성노숙인들에 비해 거리노숙을 짧게 경험한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으며, 이에 여성노숙인들에게 쉼터는 보호의 공간임을 넘어 자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노숙인 쉼터는 응급구호와 자립준비 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쉼터에서의 자립준비 과정에서 쉼터의존성(shelterization)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정책적으로 여성노숙인 쉼터를 그 기능에 따라 응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와 자립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로 분리하여 그 기능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천적 함의로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 우울, 음주문제 등 여성노숙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가 자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실천, 정신보건 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 여성노숙인 쉼터에서는 이러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지원체제와 연계하고 있다. 자립의 관점에서 입소부터 퇴소 이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로써 보호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노숙인을 개별화할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쉼터에서는 공동생활을 우선시하여 입소자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간

주하고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는 집단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실시하게 된다. 물론 집단 프로그램은 집단 역동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집단 속에서도 클라이언트의 개별화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체계적인 사례관리 실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컴퓨터환경이 노숙인의 자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하여 컴퓨터환경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 노숙인 컴퓨터는 이용자들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원조환경(helping environment)으로 작용해야 한다(김혜성, 2000). 컴퓨터 서비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단순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긍정적인 자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 개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는 보호환경으로서의 속성을 적절히 견지하기 위해 사생활의 보장, 적절한 수준의 생활유지 서비스 제공, 안정성, 지역사회 통합성, 노숙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서적 환경,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남기철, 2007). 하지만 이용자들이 컴퓨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한 대로 지나친 컴퓨터 의존성은 이용자로 하여금 자립의지를 약화하고 컴퓨터와 서비스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동생활을 위한 적절한 컴퓨터 규칙이 있어야 하며 실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을 지속함으로써 자립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노숙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립과 관련한 남녀 성차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조사를 시도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수집으로 인해 노숙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간의 인과적 특성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컴퓨터에서의 자립준비가 실제 컴퓨터 퇴소 후 자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퇴소 이후의 생활을 추적 조사한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노숙인의 개인적 요인과 컴퓨터 요인이 자립준비를 매개로 하여 사후 자립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적 특성이나 컴퓨터 특성을 선행요인(distal determinants)으로, 자립준비 및 의지를 인접요인(proximal determinants)으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컴퓨터 퇴소 후 자립 상태에 대한 경로를 분석해 본다면 이들 요인들 간의 구조적 특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동원, 2000, “노숙자 컴퓨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숙자 컴퓨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재수, 2003, “노숙인의 재활 및 자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례, 2001, “여성노숙인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사경, 2006, “노숙인 실태 및 자활에 관한 연구: 영등포 노숙인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8,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노숙인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박은철·김소임, 2001, 「서울시 홈리스 여성 실태와 대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영택, 1999, “노숙자컴퓨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숙자컴퓨터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희, 2006,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 연구: 거리노숙의 경험이 있는 여성 노숙인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근, 2004,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노숙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적용: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성, 2000, “노숙인 쉼터의 원조환경요소에 관한 연구”, 『노숙인복지연구』, 1: 65~101.
- 남기철, 2000, “노숙기간에 따른 심리사회적 외상이 보호 시설 퇴소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기철, 2007,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 노숙인 복지시설 내의 사회복지실천 양상과 체계화」, 한국학술정보.
- 남기철·황운성, 2002, “노숙인의 쉼터 생활 유형과 특성 분류”, 『사회복지연구』, 19: 103~134.
- 문영주·좌현숙, 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있어 정서적 조절 능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38: 353~379.
- 박연성·현은민, 2007,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83~94.
- 박은선, 2004, “아동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4: 85~112.
- 보건복지부, 2007, 「2007년 노숙인보호사업운영 안내」.
- 서정화, 2002, “노숙자보호시설 자활퇴소자의 재입소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화, 2005, “여성노숙인의 존재와 삶”, 『아세아연구』, 48(2): 59~85.
- 손주희, 2000, “노숙자 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순영, 2007, “여성노숙의 원인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여성상담보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원우, 2003,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노숙 경험이 노숙 전후의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위정희, 2002, “Homeless 여성의 현황과 개인특성에 관한 연구: 여성노숙자 쉼터 입소여성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조금호(역), 1983, 『무기력의 심리: 우울증, 발달 과정 및 죽음에 대하여』, 탐구당(Seligman, M. E., 1975, *Hope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Freeman: San Francisco).
- 이원숙, 1997,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이론: 실천적 접근」, 홍익재.
- 이인재·이선우·류진석, 1997, 「사회복지통계분석」, 나남출판.
- 이현미, 2007, “탈노숙 과정의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김교현, 2003, “한국정부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양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9.
- 정무성, 1999, “우리나라 노숙자의 실체와 지원사업의 당위성”, 『IMF 위기극복, 노숙자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 정은일·김수현, 2000, “노숙자 자활지원사업의 성격과 방향”, 『2000년 상반기 노숙자 자활지원사업』, 보건복지부·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 제갈정, 2001, 「한국인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조성희, 1999,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 실직 가정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주, 2001, “노숙인의 취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2000, “정서중심적 대처의 재개념화: 기능적 유사성에 근거한 대처차원의 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응호, 2003, “쉼터 노숙인의 심리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선미, 2001, 「노숙인 쉼터 종사자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 Alan, R., Darrin, H., and Andrea, C., 2006, “Fear,

- Romance and Transience in the Lives of Homeless Women", *Social & Cultural Geography*, 7(3): 437~461.
- Alice, K. J. and Larry, W. K., 1989,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Homeless Women", *Social Work*, 34(6): 537~540.
- Bassuk, E. L., Rubin, L., and Lauriat, A., 1984, "Is Homelessness a Mental Health Problem?",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1546~1550.
- Blankertz, L. E. and Cnaan, R. A., 1993, "Serving the Dually Diagnosed Homeless: Program Development and Interventions", *Journal of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20(2):100~112.
- Calsyn, R. J. and Morse, G., 1990, "Homeless Men and Women: Commonalities and a Service Gender Gap",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4): 597~608.
- Crystal, S., 1984, "Homeless Men and Homeless Women: The Gender Gap",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7: 2~6.
- Davis, J. and Kutter, C. J., 1998, "Independent Living Skill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Women Who are Homeless: Implications for Future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2(1): 39~44.
- Dworsky, A. L. and Piliavin, I., 2000, "Homeless Spell Exits and Returns: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Elaborations on Recent Studies", *Social Service Review*, 74(2): 193~213.
- Edgar, B. and Doherty, J.(Eds.), 2001. *Women and Homelessness in Europe*, Bristol, UK: Policy Press.
- Fearday, F. L., Clark, C., Martin, L., and Rich, A., 2002, *Routine Inquiry for Violence in the Lives of Homeless Mothers*, Louis de la Parte Florida Mental Health Institut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 Galaif, E. R., Nyamathi, A. M., and Stein, J. A., 1999, "Psychosocial Predictor of Current Drug Use, Drug Problems, and Physical Drug Dependence in Homeless Women", *Addictive Behaviors*, 24(6): 801~814.
- Giffords, E. D., Alonso, C., and Bell, R., 2007, "A Transitional Living Program for Homeless Adolescents: A Case Study", *Child Youth Care Forum*, 36: 141~151.
- Goering, P., Paduchak, D., and Durbin, J., 1990, "Housing Homeless Women: A Consumer Preference Study",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1(6): 790~794.
- Hagen, L. J., 1987, "Gender and Homelessness", *Social Work*, 32(4): 312~316.
-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ittrell, J. and Beck, E., 2001, "Predictors of Depression in a Sample of African-American Homeless Men: Identifying Effective Coping Strategies Given Varying Levels of Daily Stressor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7(1): 15~29.
- Lopata, H., 1975, "Support Systems of Elderly Urbanites: Chicago of the 1970s", *The Gerontologist*, 1: 35~41.
- McChesney, K. Y., 1995,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on Contemporary Urban Homeless Family", *Social Service Review*, 69: 429~460.
- Nyamathi, A. M., Stein, J. A., and Bayley, L. J., 2000, "Predictors of Mental Distress and Poor Physical Health Among Homeless Women", *Psychology and Health*, 15(4): 483~500.
- Piliavin, I., Wright, B. R. E., Mare, R. D., and Westerfelt, A. H., 1996, "Exit from and Return to Homelessness", *Social Service Review*, 70: 33~57.
- Poole, D. L. and Zugazaga, C. B., 2003, "Conceptualizing Prevention as the First Line of Offense Against Homelessness: Implications for the Federal Continuum of Care Model",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3(4): 409~424.
- Roll, C. N., Toro, P. A., and Ortola, G. L., 1999,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of Homeless Adults: A Comparison of Single Men, Single Women, and Women with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2): 189~198.

- Sullivan, G., Burnam, A., and Koegel, P., 2000, "Pathways to Homelessness among the Mentally Ill", *Social Psychiatry Epidemiology*, 35: 444~450.
- Takahashi, L. M. and Wolch, J. R., 1994, "Differences in Health and Welfare Between Homeless and Homeless Welfare Applicants in Los Angeles County", *Social Science in Medicine*, 38(10): 1401~1413.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5): 53~79.
- Wong, Y. I., Culhane, D. P., and Kuhn, R., 1997, "Predictors of Exit and Reentry among Family Shelter Users in New York City", *Social Service Review*, 71(3): 441~462.
- Zlotnick, C., Robertson, M. J., and Lahiff, M., 1999, "Getting off The Street: Economic Resources and Residential Exits from Homeless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2): 209~224.
- Zlotnick, C., Tam, T., and Robertson, M. J., 2003, "Disaffiliation, Substance Use, and Exiting Homelessness", *Substance Use & Misuse*, 38: 577~599.

원 고 접 수 일 : 2009년 1월 30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2월 24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9년 3월 9일